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 1. 거듭난 사람
- 2. 성숙한 신자
-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 종교개혁 477주년을 맞이하며 -

##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최근 강력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존파 사건, 인천 북구청 세리비리 사건, 법정증인가족 보복 살인사건, 택시강도 살인 강간 사건, 군장교 탈영 하극상 사건, 공군 골프장 수입착복 사건, 카지노 업자 공무원 상납 사건, 마침내 성수대교 붕괴 사건과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발생한 충주호 화재로 인한 참사 등 연이은 사건 사고들로 우리 사회는 난타를 당하고 있다. 전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일들의 연속으로 사회 전체가 불신과 불안,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 차서 소망을 잃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그러나 드러나는 일들은 빙각의 일각일 뿐 사회의 구석구석이 썩었고 우리의 안팎이 모두 병들었으며 근대화는 이미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차체에 걸만 치유하는 미봉책으로는 지금의 총체적 위기를 벗어날 수

없다. 무엇보다 작금의 사회적 정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이며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임을 예고하는 나팔 소리로 듣고 우리는 이제 회개해야 한다.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모세가 자기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백성을 구해내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마음으로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묻기 위해 부복해야만 한다.

16세기의 종교개혁 전야처럼 우리 사회의 종교적 분위기는 전성기를 맞고 있다. 도처에 높이 세워진 십자탑이나 신학교의 수는 가히 세계적이다. 그러나 교회와 사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재발견하여야 할 것이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외쳤던 그들의 개혁 정신은 새로운 것을 이룩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이루려는 몸부림이었다. 우리도 이제는 돌아가야 한다.

종교개혁 주일을 다른 해와는 다른 감회로 맞는 오늘, 예언자들과 사도정신을 재발견하여 뜨거운 회개와 십자가 고난이 강조되는 교회를 이루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상을 정립하여 화해와 일치 협력의 본을 보이는 새로운 개혁운동이 우리교회로부터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은 죄를 낱낱히 고백하며 통회 자복하고 제 길로 가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향의 대전환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만민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자’는 「94 비전 2000운동」 50일의 행진이 중반에 이르렀다. 여러모양으로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열기가 더해가면서 많은 새가족들이 등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한 성도는 이제라도 동참하고, 지금까지 결실이 있던 성도들은 더욱 힘써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자

▶ **오늘은 <이산가족 만남의 주일>**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였다. 특별히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교회로 초청하여 복음을 듣도록 하는 일에 힘



쓰는 날이다.

▶ **다음 주일 (11월 6일)은 <친구초청 주일>**

다음 주일은 오랫동안 기도한 태신자와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하는 날이다.

▶ **다음 주일은 찬양예배시 뮤지컬 <호세아> 공연**

호세아 가정 비극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부요함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

획하고 연습해 온 뮤지컬 <호세아>를 다음 주일 찬양예배시에 공연한다. 전도대상자와 함께 관람하도록 제작한 초청장을 활용하자



### 가슴에 교회 배지 다섯습니까?

전도한 성도만이 달 수 있는 교회 배지. 웃시람을 하나님께 인도한 자의 별과 같이 빛날 영광의 눈에 보이는 표식으로 ...

<사진은 23일 찬양예배 시 교역자들이 전도자들에게 교회 배지를 달아주는 광경>



# 한국사회의 도덕적 위기와 교회의 책임

이 중 운 목사

이 글은 지난 23일(금)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한 한국교회 지도자 100인 초청 세미나에서 주제 강연한 것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존제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통하던 생의 양식은 점차 퇴색되어가고 기술이 지배하는 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바로 이 양식의 변화는 우리 사고 생활 가치관을 바꾸어 놓고 있다. 기술사회의 출현으로 경제, 교육 전반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왔다. 오늘의 사회를 진단해 보자.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라 매우 동적인 기술 사회로 변신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있을까? 지금 나라의 안팎을 흔들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결코 우연한 것들이 아니며 심화된 한국병들이 표출된 것이다. 병든 사회에는 반드시 병의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 I. 무엇이 이 사회의 도덕을 이토록 위기로 몰아갔나?

1. 성급한 것이 병이다.
2. 문제는 남을 제쳐 놓고 내가 먼저 빨리 하려는 데 있다.
3. 한국인처럼 최고, 최대, 최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4. 우리는 정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문제다.
5. 대중 매체의 감쪽쇼와 극적 기대감의 팽배 또한 이 사회의 병리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6. 권위의 실추와 불신풍조는 이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주범 중의 하나다.
7. 오늘의 사회를 경쟁이라는 말로 대표한다. 그것이 문제다.

## II. 누가 어떻게 이 사회의 도덕을 세울 수 있는가?

법률은 타율적인 것이지만 윤리적, 도덕적 질서는 인간의 어떤 제도나 규칙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것이다. 그것은 절대적 권위 즉 하나님 앞에서만 바르게 시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 질서를 위해 국가나 사회 풍습 또는 교육 현장이나 가정을 논하는 것보다 하나님 신앙을 가진 종교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실현하는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부여된 도덕적 과제를 눈살함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천국 윤리를 이 땅 위에 세울 수 있을 것이다.

### A.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와 왔다" (마3:2).

이 말씀은 오늘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다.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자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성경)보다 교권주의를, 은총보다 기복주의를, 믿음보다 인간적 지

식과 지혜를 강조한 한국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오직 말씀만, 오직 은혜만, 오직 믿음만으로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도록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 상황은 단순한 사회병리현상이라기 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며 하나님 면전에서 책임을 못다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를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 죄를 짓고도 '내니이까?' 하는 가증스러운 질문을 던진 가룟 유다의 뻔뻔스러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었음을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를 시급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477주년인 되는 1994년 10월 30일 주일을 민족 회개의 날로 정하고 전국 1200만 기독교인들은 개인과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날로 삼고 기도하자.

### B. "하나님의 나라는 ...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롬 17:17).

#### 첫째, 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하여

여기서 말씀된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그 나라의 내용이 곧 그 의라고 하신 것이다. 우리는 본래 의의 찌꺼기조차 갖지 못했던 존재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킨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율법에 매어 의를 좇는 자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율법의 요구보다 더 큰 헌신을 함으로써 이 땅 위에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자가 된다.

1. 기독교 교도소를 설립, 운영한다.
2. 정직 운동을 확산한다.
3. 절제 운동을 확산한다. (청소년 「순결지기 서약식」을 행한다)
4. 경제 정의를 실현한다.
5. 초, 중, 고교생에게 「종교윤리과목」을 개설하여 수강케 한다. (국민 20%이상 신도를 가진 종파만 참여케 한다)

#### 둘째, 화평한 사회 건설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과 서가, 남과 여가 하나 되는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

므로 천국백성은 화평한 사회를 건설하는 화목케 하는 자(peace maker)가 되어야 한다.

1. 북한 동포 돕기 운동
2. 북한 재산권 포기 운동
3.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 확산
4. 한 교회 한 장애인 취업 기회 확대 운동
5. 균등한 지역개발 및 인재 등용 촉구
6. 우리는 한가족 운동
7. 교회 민주화 촉진
8.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한 기도운동

#### 셋째, 희락 사회 건설을 위하여

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된 교회상을 정립하고 하나되는 운동
2. 감사하는 사회 만들기 운동
3. 예절과 질서를 바로 찾기 운동
4. 건전한 운동 및 오락을 위해 교회시설 개방하기 운동
5.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는 훈련원 개설
6. 환경문제, 공해문제, 자연 보존의 문제에 교회의 적극적 대처 촉구

#### 결 론

교회를 통해서 사회 도덕을 구축할 수 있다는 말은 곧 사랑에 기초한 사회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의는 사랑에 필요한 도구이며 정의는 사회제도생활에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회 도덕 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하려면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서야 한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집합적 부도덕성을 해소하는 방법은 결국 교회가 정의 사회를 구현하고 화평을 이루는 중보자가 되며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하나님 앞에서 상호신뢰가 회복되고 밝고 깨끗한 사회가 구축되며 민족 화해를 이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작금 우리 사회는 가치관의 혼란과 아노미(무규범)의 현상이 심하게 노출되고 있어 불신, 이기심, 억압과 폭력이 온 사회에 팽배하여 사회 갈등을 야기시키고 시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복음 증거에 더 힘찬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라도 어두워진 사회에 이전보다 더 큰 관심과 협력의 손을 펴야 한다. 우리는 위에 언급한 여러가지 프로그램 외에도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위하여 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하기 위해서 <통일조국 시민 생활운동 부분>를 설치하고 정직 - 질서 - 사랑 실천 운동 전개해야 한다.

목회자세미나 현장 스케치

10월 24일(월) 제2교시 강의 요약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

강사 / 김형석 교수 (연세대)

키에르케고르의 배후를 더듬어 올라가면 거기에는 기독교가 있다. 마틴 루터, 아우구스티누스, 바울, 신약과 구약, 그리고 그리스도 및 여호와 하나님이 좌정한다. 그의 사상적 배경과 정신적 생명은 히브리인의 종교와 기독교의 진리가 전적으로 지배해 왔다. 실존철학자 중의 누구보다도 그는 기독교적이며 신학(信學)적이었다.

그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문제를 그리스도에 게서 해결짓는 데 있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이 그의 명제이다. 탈레스에서 해결까지의 사상을 기독교의 정신으로 정화시키며 그것을 구원에의 진리로 이끌어들이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1905년 독일어로 그의 책이 번역된 이후 키에르케고르의 인간학과 철학사상은 하이데커, 야스퍼스, 샤르트르 등의 실존철학자와 칼 발트의 신학에 영향을 주었고 이로써 그의 철학사에 있어서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그가 활동한 19세기 전엽은 개인의 주장이 지배하던 시대는 지나고 집단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사람의 개인이 두각을 나타낸다. 키에르케고르와 니이체이다. 이 두사람은 서로 아무런 연관성도 없이 출발하여 가장 많은 공통성과 접근성을 지닌 사상과 철학을 형성시킨다. 두 사람의 관심은 공통적

으로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인간과 인간의 문제 해결에 대한 각각의 견해는 매우 다르다.

한마디로 그들의 사상을 비교하자면 키에르케고르는 신 앞에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규정한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불안의 개념>의 근본사상도 죄의 개념이었으며, <죽음에 이르는 병>의 근본내용도 절망은 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반면, 니이체는 죄를 모르는 사람이다. 비록 악과 죄가 있다고 해도 '신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죄와 악은 우리들의 공상과 추리에 지나지 못한다. 여기에 키에르케고르와 니이체의 본질적인 대립이 있는 동시에 죄인과 초인의 구별이 뚜렷해진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인간을 몰았다는 점에서는 위대하나 해답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만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이 발견한 인간은 같은 과제와 한계와 운명에 도달하고 있는 인간들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인

간은 공포의 인간이다. 절망의 인간, 부정과 모순의 인간, 죽음에의 인간, 무에의 존재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문제되게 한 것은 무엇이며, 어디에 그 해결의 열쇠와 통로가 있는가?

키에르케고르의 인간은 정신(자아)에 속에 유한을 지니고 항상 무한과 대결하는 존재이며 유한과 무한의 결

합점에서 '이것인가, 저것인가'를 선택, 결정짓는 존재이다. 인간의 정신에 있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인데 죄를 가진 인간은 마지막까지 절망할 수밖에 없으며 죽음에 이르는 병, 즉 절망으로부터의 구원은 제3자가 개입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그것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영원자이신 신 앞에서 사는 일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과 불안을 그리스도로 극복한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육신이 끝나더라도 정신은 하나님과 더불어 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그리스도는 '잠잔다'고 하였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기적이라고 하셨다(요11장 40절).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죄인이라 규정하는 동시에, 자아를 신앞에 세워 오직 하나뿐인 초월과 구원의 길을 얻고자 한다. 기독교의 인간관, 그리스도의 구원관을 주체적이며 윤리적인 동시에 인간학적인 과제에서 해명해 나가려 하였던 것이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조그마한 도시 비텐베르크에서 일어난 한 사건은 교회사 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파장을 던졌다.

이름해서 '종교개혁'이라 하고 주인공은 마틴 루터(Martin Luther)였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의 개혁에서 시작되거나 그친 것이 아니다. 지리상의 발견, 인문주의 운동과 함께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중세의 카톨릭적인 보편질서를 깨고 유럽제국으로 하여금 문화·정치·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민족적인 독자성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그들의 민족의식을 각성시켜 독일이라는 나라를 성립시키는 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독일 민족사에도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종교개혁은 중세의 카톨릭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개신교(Protestant)라고 하는 새로운 기독교를 탄생시켰다. 개신교는 적어도 출발 당시에는 다음 몇가지 점에서 카톨릭과는 달랐다.

첫째, 카톨릭의 '교회지상(至上)주의'를 '성경지상주의'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카톨릭은 교회와 교황이 가장 높은 권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회의 전통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하고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켰다.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거나 말씀에 위배되는 교회의 전통은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카톨릭의 7성사(聖事)가 개신교의 2성례(세례와 성찬)로 바뀌게 된 것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둘째 구원관이다. 카톨릭은 당시 믿음으로 구원얻는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선한 행위나 공로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더 강조하였다. 면죄부

종교개혁 477주년을 맞으며

종교개혁의 의의와 교훈



이만열 전도사

(청년부 지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를 판매하였던 것은 이 때문이다. 면죄부를 산 자는 교회에 그만큼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자기의 부모나 조상들이 연옥에서 천당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4, 롬 1:17)"고 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이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확신하였다. 선한 행위나 공로에 의해 구원얻는다는 것은 곧 구원의 주체가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것으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에서 떠난 것이다.

셋째, 만인제사장(萬人祭司長)을 주장한 것이다. 교황과 신부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

다는 계급적, 권위주의적인 카톨릭에 대하여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직접' 간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카톨릭의 거짓된 교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개신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릇된 카리스마적 권위를 부정하는 근거도 된다.

이제 내일(10월 31일)이면 종교개혁 477돌을 맞는다. 종교개혁이 하나의 지나간 '사건'에 그쳐서는 안된다. 우리는 오늘의 교회를 그 때의 주장과 열심에 비취보면서 반성하고 개혁시켜야 한다. 개혁은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교회가 개혁되고 그 개혁된 힘으로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 종교개혁 당시에 그 개혁은 종교적인 분야에서만 진행된 것이 아니고 사회개혁과 함께 진행되었다. 따라서 그 때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교회개혁은 사회개혁과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도 아울러 얻게 된다.

■ 비전 2000운동에 참가하면서

## “나도 전도할 수 있다!”



김 찬 진 집사 (1교구, 새가족부 교사)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영혼 구원의 열심을 주실 뿐 아니라 전도자들에게 기쁨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께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드리며 벽찬 감격으로 찬양드릴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탄 포도넝쿨처럼 아무 가치도 없고 소망도 없던 부족한 저에게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전도하는 일이 처음에는 어렵고 부끄럽게만 여겨졌었는데 하면 할수록 힘을 주시고 다양한 상황에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십니다. 70인 전도대를 통해 전도 훈련을 받은 후에는 배운대로 하면서 한, 둘 결실의 기쁨도 맛보게 하시고 십야전도를 통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택시타면 기사님께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시고 시장에 가면 상인에게, 그리고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란 저런 모양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면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라 하시기에 혹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열심을 다하려 합니다.

그간 오래동안 숙제처럼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는데 ‘교회 앞을 무심히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겠구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9일 비전 2000운동 본부에서 마침 전도하기에 좋은 조건들을 준비해 주셔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수고하고 계신 의경 한 분을 발견하였습니다. 기도하는 맘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피곤하실 텐데 다리도 쉬실 겸 예배에 참석하시죠?”라고 권면했더니 흔쾌히 승락하였고 예배를 드리며 마음이 활짝 열려 그날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잔치가 크게 벌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던 것처럼 무가치한 자에게 소망과 용기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작은 제자 삼으시니 오늘도 넘치는 감사로 힘차게 나갑니다. “나도 전도할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 서울주간기도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우리 삶과 교회와 사회가 하나님께 돌아가 개혁될 수 있도록
2. 비전 2000운동의 참된 결실을 위하여
3. 태신자를 위하여

### 비전 2000기도제목

- 복음 전할 기쁨과 사명을 주옵소서.
- 복음전할 기회와 환경을 허락하옵소서.
- 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 복한 땅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될 교회당 건축을 허락하옵소서.
- 한국교회 갱신운동이 복음증거로 확산되게 하옵소서.
- 비전 2000운동으로 다락방마다 부흥되게 하옵소서.

## 직원으로 일하실 분을 찾습니다.

- 장애인 중에 컴퓨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 -

몸에 장애가 있지만 컴퓨터 조작성이 가능하신 분을 사무국 직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교회의 각종 자료의 입력과 전산화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장애인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문의는 사무국 (☎ 517-7651 ~ 5)로 하시면 됩니다.

### 목회자 동정

- 이종운 목사는 국방부가 주최하고 군복음화 후원회가 후원하는 육해공군 전체 군복 신학 세미나에서 「21세기 지도자들의 비전과 각오」라는 제목으로 강연한다. 이 세미나는 11월 2일(수)과 9일(수) 두차례에 걸쳐 소망수양관에서 개최된다.
- 한국기독교 가정 상담 연구소 (소장: 심상권 목사)의 이사회(이사장: 이종운 목사)가 오는 11월 3일(목)에 소집된다. 동 연구소는 오는 11월 29일 창립 1주년을 맞아 「후원자의 밤」 행사를 갖고 가정문제에 대한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 교우 동정

- 조원섭 · 김혜련 집사는 송파구 오금동에 「소망화원」을 개업하고 예배를 드렸다. (소망화원 ☎ 449-9248)



**미화원 초청 위로잔치** 한나 제1 전도회에서는 지난 25일(화)에 교회인근에서 수고하시는 미화원들을 초청,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대접하며 복음을 전했다.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위치

